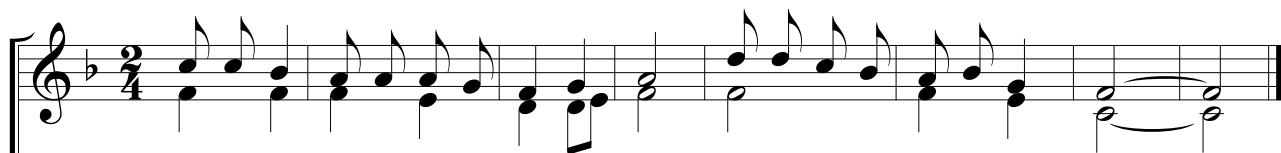


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화답송

시편 126(125), 1-2ㄱㄴ. 2ㄷㄹ-3. 4-5. 6



(후렴)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 라.



1.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 어 주 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 - 였 네.

2. 그 때 민족들이 말 하 였 - 네. "주님이 큰일을 하 셧 구 나."
저들에게

3. 주님, 저희의 귀양살이 눈물로 환호하며 거 두 리 라.
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 돌 리 소 서. 씨뿌리던 사람들



그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 - 치 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 득 찼 네.

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 셧 기 에 우리는 기뻐 하 - 였 네.

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 - 람 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 아오리라.

